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김미은



참 허탈한 한 주였다. 지난주에 들러온 문화 관련 두 가지 뉴스 때문이다. 먼저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 이사진 구성 소식. 재단은 지역 문화계 지형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는 임무가 부여된 조직이다. 일부에서는 문화권력, 문화공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권한과 과제가 방대하다.

이번 이사 선임은 무엇보다 강운태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첫번째 작풍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초점이 됐다.

이사 명단을 받아보고 든 생각은 "이거 혹시 고문 명단 아니야?"였다. 시장이 나점한 13명의 이사는 60~70대 대부분이었다. 면면도 새로운 인물보다는 '또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허탈한 광주 문화계

문화계 반응도 착잡했다. 타 분야 처럼 문화계 역시 시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 아무리 유능한 인재도 시장이 나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도 시장을 설득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CEO가 바뀐 현 시점을 지역 문화계는 대전환점으로 삼았다.

물론 이번엔 선임된 이사 개인의 이력과 능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다. 지금의 명성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님은 물론이다. 또 이사회가 모든 일을 좌지우지 하지도 않는다.

강운태 시장의 문화 마인드는?

하지만 시장의 문화 마인드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이사회 구성은 의미가 있었고 새로운 기대했던 이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과거와 새바람이 가장 자연스러운 게 문화분야가 아닌가.

강 시장 취임 후 시장의 문화 마인드가 어떠한 질문을 자주 받았다. 다들 그 실체를 궁금해 했는데 이번 인선을 보고, 기대를 접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이들이 많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총회에서 강 시장은 "OO 선배님의 고견을 들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연륜있는 이사들을 자문단으

로 위촉했으면 어땠을까. 이어진 뉴스는 구자범 광주시향 지휘자의 경기도행(行)이었다. 사실, 강 시장 취임 후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연임이 되지 않는 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이번 재계약 실패가 이와는 무관하지만 시와 문화계 관계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어 씁쓸했다.

구 지휘자가 떠나는 것을 두고, "시가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조건을 제시했는데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중이다. 정확한 건 재

립에술단체까지 운영할 모양이다.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단 발기인 총회에서 시장은 "시립단체를 재단이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되,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예술단 운영은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속도전에 빠지지 말고 '제발' 재대로 검토한 후 시행하길 옮기길 바란다. 시장의 발언이 절대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재단 '소화불량' 걱정된다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행보는 주목된다. 23명이라는 유례가 없는 대규모 인원이야 보니, 문화계의 관심이 무척 높다. 아쉽게도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무시로 듣는 게 지역 문화계 모습이다. 마음 같아선 모든 자리를 공개 경쟁에 부쳐 뛰어난 인재를 뽑으라고 말하고 싶다. 재 사람 심기를 정말 '회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현실적인 바람으로 대신하는 상황이 슬프다.

시내 곳곳에 20억원을 들여 상징물을 만든다고 한다. 에디터와 축제 교류도 준비중이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의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과 시스템이다.

광주 문화계는 엄동설한인 듯하다. 어디선가 봄의 기운이 조금씩 싹 트고 있는데 필자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다행스러운 일은 없겠다.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시설

사라지는 '5·18 사적지' 당국은 뭘 하나

광주에 남아 있는 5·18 사적지 29곳 중 무려 17곳이 형태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특히 옛 광주기무부대와 광주국군통합병원, 광주교도소 등 6곳은 머지 않아 개발되거나 변형이 불가피해 '말 뿐인' 사적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옛 광주기무부대와 국군통합병원 부지는 관리인이나 통제시설이 전혀 없어 현재 성한 건물을 찾아볼 수 없고,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다. 광주교도소 역시 이전이 임박했으나 구체적인 건물과 부지 활용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을 포함한 5·18 사적지는 99곳에 달하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사적지는 표지석만 세워져 있을 뿐 사실상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별도의 체계적인 보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손을 놓은 탓이 크다. 또 사적지의 상당수가 개인 또는 다른 공공기관 소유로 돼 있

다는 점도 관리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부지를 사들이거나 양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는 얘기도.

5·18에 대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5·18을 통해 광주를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고 자임해 왔으면서도 정작 사적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뒤늦게나마 광주시가 내년부터 2013년까지 사적지 29곳에 상징물을 설치하고, 이를 한 데 묶은 291km 길이의 '월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니 다소 위안이 된다. 하지만 상징물은 주인이자 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작해야 한다.

또한 사적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미루서는 안 된다. 5·18 민중항쟁의 발자취를 찾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다.

광주 자치구 건축 비리 수사 철저히 하라

경찰이 광주지역 자치구의 건축 행정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다세대 주택 불법 증·개축 등과 관련해 비리 정황을 잡고 6일 광주시 동·서·남·광산구 등 4개 구청 건축과와 건축사 사무실 9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건축사 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광주지역 일부 다세대 주택 건축주 등이 불법 증·개축을 했으나 일부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구청 측의 목인이 있거나 건축주 등이 청탁이나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번 경찰 수사를 주목하는 것은 자치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기도 하지만 건축 및 공사 관련 비리는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이기 때

문이다. 실제로 각종 건축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 수주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리가 횡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중도하차한 지자체 단체장의 대다수가 건설 관련 비리와 관련된 것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건설사의 불법로비는 관행화되다시피 할 정도로 뿌리가 깊다. 건설비리가 모든 토착비리와 공직비리의 근원이자 고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건설 관련 비리의 근절 없이는 공직·지역 사회의 정화는 난망하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 재건축 증·개축 관련 비리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광주 시내 거의 모든 구청을 벌집 췌서놓듯 해놓고 용두사미(龍頭蛇尾) 식으로 끝낸 것은 자치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기도 하지만 건축 및 공사 관련 비리는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이기 때

은펜칼럼

이병우



초보 강사가 저지르기 쉬운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정답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다. 청중을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핵심이 흔들리고 곱돌기 쉽다. 음식 상차리기와 강의하기에는 공통점이 많다. 먼저 무조건 많이 처리하면 안 된다. 이것 저것 종류만 많고 먹을 것 없는 밥상처럼 되기 쉽다.

명강의는 한꺼번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나오는 한식보다는 전채와 메인 요리, 후식으로 나뉘어 나오는 코스 요리와 비슷하다. 전채는 애피타이저이다.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가벼운 음식으로 하염금 위장을 준비운동 시킨다. 말하기에서는 흥미를 끄는 역할이다. 이 오프닝 단계가 아주 중요하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인적인 에피소드, 주제와 관련된 비유, 청중과 비슷한 사람의 사례, 인용구, 가벼운 질문, 드라마 연출, 시사

이슈 제기, 가벼운 유머 등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강사를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라고 한다. 10초면 어떤 의미있는 말을 하기에 매우 짧은 시간이다. 벨라비안 법칙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내용은 7%인데 비해 음성과 같은 청각적 요소가 38%, 표정과 같은 시각적 요소가 55%를 차지한다. 말의 내용보다 모습을 보고 알아챈다는 것이다.

명의를 초보의사의 차이점은? 초보의사는 1가지 증세에 20가지 처방을 하는데 비해 명의를 20가지 증세에 한 가지 처방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잘 되는 음식점과 그렇지 않은 음식점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강의하기와 밥상 차리기의 공통점

지다. 음식 메뉴가 많을수록 장사가 잘 안 되는 음식점이다. 나주 곰탕은 이것 하나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다. 백반집은 어딜가나 비슷해서 특징을 잡아내기 어렵다.

강의하기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보다 한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시간동안 말할 수 있으면 전문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말을 잘 못하는 경우를 두고 두서너개 없다고 한다. 순서 없

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 처음과 끝이 헷갈리는 것이다. 이것은 음식으로 얘기하면 메인요리가 애피타이저와 섞여서 나오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메인 요리를 들이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강의하기와 밥상 차리기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소화시킬 만큼만 내놓아야 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에 걸린다. 둘째, 전채와 메인요리, 후식을 어떻게 구성할까 연구를 해야 한다. 수순은 바둑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셋째, 삼합 요리 같이 서로 다르지만 절묘하게 조화되는 것을 찾아야 한다. 명품 강의의 조건이다.

일부식 정원 디자인의 대부분 코치기나 박사는 이렇게 얘기한다. "핵심을 살리려면 덜 중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디자이너들은 숨기고, 감추는 것의 미학을 지녀야 한다.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기 때문이다."

이상은 2년 6개월간 겸임교수직을 수행하고 난 후에 얻은 교훈이다. 그동안 밥상을 잘 못 차려 소화불량에 걸리게 한 경우가 많았던 것을 반성하면서... <보혜양조 이사·언론학 박사>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신는 코너입니다.

'곰 세 마리 한 가족' 북한노동당, 민주당, 민노당은 차라리 삼당하라! 세계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은 이 세 정당뿐이다. 강령, 정책, 행동이 '反대한민국노선'으로 똑 같으니 3당삼당하는 게 정직할 것이다.

- 북한노동당과 민주당과 민노당은 공통점이 너무 많다.
- 이 3당은 북한정권에 돈과 시간을 주어 핵무기를 만들게 도운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 對南적화전략문서이자 반역면허증인 6·15 선언을 지지한다.
- 세계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은 이 세 정당뿐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피해자인 李明博 정부를 전생세력으로 몬 것도 이 3당뿐이었다.
- 북괴군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즈음하여 그 책임을 李明博 정부에 전가하는 정당은 세계에서 이 3당뿐이다.
- 민노당은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사회주의

나라가 걱정될 때는 '朴正熙 전기(全13권)'

정가 128,700원 → 102,960원(20% 할인)
전화 02-722-9411~3 팩스 02-722-9414
국민은행 360101-04-065553
(예금주 조감제)으로 입금한 후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chogabje.com 홈페이지에서도 결제가능.

- 지향을 黨의 강령으로 삼고 있어 북한노동당의 노선과 거의 같다.
- 從北쓰레기들과 깡판꾼이 주동,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위험물질로 둔갑시켜,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면서 亂動을 부릴 때, 이 폭도들을 응원한 것은 세계에서 이 3당뿐이다.
- 북한정권에 의한 주민학살 등 人權탄압에 대하여 무관심한 정당은 이 3당뿐이다.
-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변명해주는 정당은 세계에서 이 3당뿐이다.

결론적으로 이 3당은 대한민국에 반대하고 진실을 부정하고 人權을 무시하고 헌법을 부인하며, 김일성-김정일 노선에 굴종, 추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 강령, 정책, 행동이 '곰 세 마리' 처럼 비슷하고 서로 오손도손 잘도 노는 이들은 삼당하는 게 정직할 것이다. 북한노동당, 민주당, 민노당은 3당합당, 자신들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내고 표를 달라고 하라! 민주당과 민노당이 북한노동당을 상전 모시듯하므로 북로당이 민주당과 민노당을 흡수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삼당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 세 정당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감안하여 민주당을 남로당(남조선노동당), 민주당을 남민당(남조선민주당)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른다. * '국방파괴자'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미화해주는 신문 방송사에 전화합시다! 연평도에서 술판발인 MBC도 흔내줍시다!

진정한 애국은 지갑과 손발로 표현됩니다!
후원해주시 애국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후원(회비)계좌: 참여신당단체(50만원), 후원회원 모집(천원도, 만원도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은행 813001-04-000546 우리은행 119-397281-02-001
우체국 014159-01-002993 농협 1289-01-000331
예금주: 국민행동본부(서정갑)
▶ 연락처: Tel. (02)527-4515~6 Fax. (02)527-4517
Homepage: http://www.nac.or.kr Email: colsuhnac@naver.com

국민행동본부
National Action Campaign
본부장 徐貞甲 육·해·공·해병대 (예)대령연합회 명예회장